

연금으로 생활비 턱없이 부족...은퇴 후에도 일한다

☞ 미래 대비하자...국민연금 관리법
《노령 연금 수급자 현실

“은퇴는 했어도 아직 건강합니다. 75살까지 근무하길 희망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지난 16일 오전 8시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김모(74)씨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묻어났다. 가을바람이 부는 아침, 배드민턴장 곳곳에 떨어진 낙엽을 치우는 그의 손놀림은 젊은 사람 못지 않게 부지런했다.

김씨는 “출근이 오전 8시 반이라 좀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밤새 순찰도 돌고 택배 정리도 하고 주민 민원도 청가다 보면 하루가 금세 간다”고 미소를 지었다.

‘경비원’이라는 직책은 이름 그대로 아파트를

열악한 환경에도 가족 생활비 충당
경비·택시 등 소중한 일터 ‘구슬땀’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박차

‘지키는’ 사람을 뜻하지만, 요즘은 단순히 경비만 서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택배 안내, 주차 지도, 청소 등 사실상 관리소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능 일꾼에 가깝다.

김씨는 한 직장에서 30여년을 근무하다 61세에 은퇴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고달팠다. 광주시체육회, 상공회의소 등에서 단기 근무를 하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다 지금의 아파트에 근무한 지도 벌써 6년째다.

그의 하루 근무 시간은 무려 24시간이다. 오전 6시30분 출근해 다음날 같은 시간까지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 근무자다. 중간중간 식사나 휴식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14시간 가량을 꼬박 일한다.

김씨가 받는 한 달의 노령연금은 80만원 남짓. 이 금액으로 생활하긴 턱없이 부족해 60세 이후에도 쉬지 않고 일터를 찾아야 했다.

그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더 늙는 것 같은 느낌인데 몸이 피곤해도 일하고 있으면 마음은 덜 외롭다”며 “요즘은 대부분 연금으로 살기 어려워 60대 중반 공무원이나 공기업 퇴직자들도 많이와 75세 정도까지 일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은 김씨뿐만이 아니다. 목포에 사는 최모(68)씨도 5년째 택시 운전대를 잡고 있다.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운전하며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일을 반복한다.

최씨는 “연금이 한 달 50만원 정도 들어오지만, 그걸로는 생활이 안 된다”며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처럼 고령 택시기사들의 근무 환경도 녹

록지 않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하루 일하면 피곤함으로 다음 날은 쉬어야 해 만근 수당을 받을 수 없고 계약기간도 1년 단위라 장기 근무를 보장받기 어렵다.

이처럼 경제적 이유로 다시 일터에 나서는 ‘노년 근로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광주의 한 구청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생계 지원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경로당, 급식, 청소, 공원관리 등 다양한 형태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참여자 선발에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복지부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다”며 “예산도 꾸준히 늘어나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태호 기자



지난 16일 경비원 김모씨가 이른 아침부터 배드민턴장 곳곳에 떨어진 낙엽을 치우고 있다.

장성 ‘엘로언어심리발달센터’ 문 열었다

군내 최초 통합 아동발달전문기관
언어·심리 통합 치료 시스템 운영



장성군 최초의 통합 발달전문기관인 엘로언어심리발달센터(센터)가 지난 9월 문을 열어 지역 아동 발달지원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동안 장성군은 장애인 복지관과 가족센터 외에 전문 발달치료 기관이 없어 다수의 가정이 광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번 센터 개소로 지역 내에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발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9월 장성군 최초 통합 발달전문기관으로 개소한 엘로언어심리발달센터 내부 모습. <엘로언어심리발달센터 제공>

19일 센터에 따르면 총 80평 규모의 쾌적한 공간에 1대1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 감각통합실, 그룹수업실, 특수체육실, 그리고 부설로 엘로언어심리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센터 원장을 비롯한 부설연구소장, 언어재활사, 감각통합치료사, 심리치료사 등이 이곳을 찾는 아동들의 발달지원을 돕고 있다.

센터는 언어치료, 심리치료, 감각통합치료, 사회성 그룹프로그램, 부모상담 등 다학제 통합 치료 시스템을 운영한다. 발달·언어·심리·지능·기질검사를 통해 아동의 특성과 발달단계를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심리와 언어, 감각의 조화로운 발달을 돕는 것은 물론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센터는 ‘케어폴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의 발달 및 치료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언어·심리·감각·특수체육 등 다학제적 치료사들이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기록을 확인, 공유함으로써, 일관된 치료 방향을 유지하고 협력적 중재가 가능하다. 또한 일정 관리와 서류 업무를 전산화해 부모와의 소통 효율을 높였다.

김나연(사진) 엘로언어심리발달센터 원장과 채덕기 부설 연구소 소장은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강사로 활동 중이며, 연구소는 교재·교구 개발과 치료사 역량 강화에 주력한다.

김나연 원장은 “발달은 언어·심리·감각 등 다

양한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기관을 만들고자 했다”고 설립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도심으로 나가지 않아도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기관이자 장성에서도 최고의 발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엘로언어심리발달센터는 발달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의 치료비용·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전남학생수당(공생카드)과 지역사랑상품권, 꿈그린카드 등의 제도를 운용 중이며 장성군에 만 9세 이하 아이들까지 장애등급 없이도 지원이 가능한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바우처’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윤찬웅 수습기자

aT, 한식 앞세워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

현지 최대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MOU 7건 체결 K-외식 성장 기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9일 “지난 10-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국제 프랜차이즈 & 라이선스 박람회(FLEI)’에 참가해 7건의 MOU를 체결하며 K-외식의 시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로 20년째인 FLEI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박람회로 인도네시아 진출을 노리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불리는 대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올해 박람회에는 200여개 브랜드가 참가했고 약 1만8천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aT가 마련한 통합한국관에는 떡볶이, 김밥, 치킨 등 대표 한식과 피자·음료 같은 대중적 메뉴가 함께 선보였다. 시식 코너에는 불고기피자, 떡볶이, 치킨을 맛보려는 인파가 몰리며 긴 줄이 이어졌고 바이어 상담 테이블도 연일 북적였으며 관람객들이 휴대폰으로 인증샷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통합한국관은 행사 기간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MOU 외에도 가맹·마스터 프랜차이즈(MF) 체결 관련 문의가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는 행사 종료 후에도 상담을 기다리는 바이어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현장을 찾아 치킨 전문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이어 데워는 “이제 한식은 현지에서 누구나 즐기는 메뉴로, 시장성이 매우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기관 aT 수출식품이사는 “인구가 3억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는 국가 평균연령이 29세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유망시장”이라며 “앞으로도 K-외식이 동남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여름철 폭염 운영집화 예방 수칙

실외작업장 운영집화 예방 기본수칙

- 3!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 4!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5!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건강한 남도의 숨결이 담긴 문화관광형 시장, 여기는 양동시장입니다!

1910년대에 광주교 아래 백사장에서 달마다 2일과 7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인 1940년, 신사 주변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장이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69년 12월 이전에는 시영시장으로 운영되다가 그 후부터 민영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시장 옆에 복개상가가 생겼고, 지금은 현대적인 시설로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340여 개 있습니다.

***양동시장은 특히 제수용품이나 혼수용품으로 유명하며 4월~9월에는 첫째·셋째 주 일요일이 정기휴일이고, 10~3월에는 휴일이 없습니다.**

시장구분 : 상설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로 238 개설일 : 공식개설일 1973년	점포수 : 260곳 시장면적 : 10,582㎡	주요취급품목 - 생식물(야채, 청과, 생선), 가공식품(반찬, 젓갈) 등 ◆양동시장 상인회 : 062-366-0884
---	--	---

건강한 남도의 산지 직송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우수 전통시장

양동시장 둘러보기

인정받지는 시장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 서구 GWANGJU CITY SEOGU

광고문의 : 062)650-2099

CMYK